文獻閣과 文獻閣書目의 分析

—肅宗朝의 文化的 背景을 통한 韓國本 書庫의 硏究—

南　　權　　熙*

<目　次>

Ⅰ. 緖　言
Ⅱ. 文獻閣의 設立時期와 位置
Ⅲ. 文獻閣設立의 歷史的 背景
Ⅳ. 文獻閣書目의 成立과 藏書構成 分析
Ⅴ. 文獻閣書目의 分類體系
Ⅵ. 文獻閣書目의 書誌記述
Ⅶ. 結　言
參考文獻

Ⅰ. 緖　言

이 硏究는 肅宗朝에 設立되어 韓國本을 收藏하였던 圖書館인 文獻閣에 대한 究明과 그 書目의 分析에 관한 것이다.

文獻閣은 集賢殿, 弘文館, 奎章閣으로 이어지는 朝鮮時代 圖書館史 중 比較的 沈滯期하였던 17世紀에서 18世紀 初 사이에 肅宗의 命에 의하여 廂庫의 韓國本을 整理하기 위하여 建立된 書庫이다.

그러나 文獻閣이나 肅宗朝의 文化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못하므로 이 硏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目的과 必要性에 따라 考察하여 보았다.

첫째, 奎章閣의 韓國本 書庫인 西庫以前의 韓國本 所藏處를 밝혀 그 脈을 찾고자 하였으며,

둘째, 文獻閣과 廂庫와의 關係를 밝혀 그 相互關聯을 알게 하고,

셋째, 文獻閣書目의 分析을 통하여 韓國本의 分類體系와 書誌記述을 他書目과 比較하여 그 特色을 찾고 더불어 藏書構成의 槪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講師

넷째, 文獻閣의 設立과 그 衰退의 過程을 당시 文化的 背景과 黨爭으로 인한 典籍文化의 破毁 등에서 살펴 봄으로써 圖書館史의 一部로써 關係資料를 補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文獻閣 硏究의 基本的인 史料를 들자면 《實錄》[1], 《承政院日記》[2], 《宮闕志》[3] 등이 있으며, 그 所藏內容을 밝혀 주는 資料로는 《閱古觀書目》[4] 내의 〈文獻閣書目〉이 그것이다.

文獻閣과 그 藏書에 대한 基礎的인 硏究는 아직 未見이나 다만 그 名稱만이라도 言及된 것으로는 白麟님[5]과 李載喆님[6]의 硏究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중에서 白麟님은 奎章閣을 說明하면서 文獻閣의 藏書도 貞蹟堂의 藏書와 함께 奎章閣으로 옮겼을 것으로 推定하였으며 李載喆님은 藏書閣에 所藏된 《閱古觀書目》의 合綴部分으로 〈文獻閣書目〉이 있음을 紹介하였다.

그러나 文獻閣만을 對象으로 한 硏究는 없었으며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集賢殿으로부터 奎章閣으로 이어지는 圖書館發達史 중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文獻閣을 文獻을 통하여 再照明하고자 하였다.

다만 舊韓末에 있어서의 文獻閣의 變遷은 時間的, 空間的 制約과 關係資料의 不足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밖에 現存하는 文獻閣藏書가 있는지의 有無를 다루지 못한 點 등을 그 制限點으로 들 수가 있겠다.

Ⅱ. 文獻閣의 設立時期와 位置

1. 文獻閣의 設立時期

文獻閣의 設立時期를 밝혀 주는 資料로는 《宮闕志》[7]와 《增補文獻備考》[8]가

1) **朝鮮王朝實錄**(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55~1958), 影印本, 48册(以下 《實錄》이라 略記한다).
2) **承政院日記**(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63), 影印本, 126册.
3) **宮闕志**(서울 : 서울特別市編纂委員會, 檀紀 4290(1957)), pp. 107~138.
4) 奎章閣編, **閱古觀書目**〔發行事項不明〕, 1册, 藏書閣所藏(2-4654).
5) 白麟, **韓國圖書館史硏究**(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120.
6)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史의 一硏究 : 朝鮮朝의 四部分類法考," **省谷論叢**, 7輯(1976), pp. 583~584.
7) **宮闕志**, p. 129.
「…肅宗二十六年(1700) 庚辰 藏書籍…」
8)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서울 : 東國文化社, 1959), 上, p. 497 下右.
「…文獻閣 在景賢堂東行閣 肅宗二十六年 以藏書籍…」

있는 바로 이에 의하면 肅宗 26年(1700)에 慶熙宮 내 景賢堂의 동편 行閣으로 建立되어 書籍을 所藏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밖의 具體的인 날짜나 狀況에 관한 記錄은 資料의 不足과 寡聞의 탓으로 찾을 수가 없었다.

2. 文獻閣의 位置

文獻閣의 建物은 慶熙宮의 南門인 開陽門 方向이며, 宮闕의 全體로 볼 때 正殿인 崇政殿을 基準으로 하여 東南쪽에 해당한다.

이 慶熙宮은 文獻閣이 設立되었던 肅宗 26年(1700) 當時는 慶德宮이라 불리었으나 英祖 36年(1760) 庚辰에 仁祖의 生父였던 元宗의 諡號인 '恭良敬德仁憲靖穆 章孝大王'의 '敬德'과 同音이라 慶熙宮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9]

慶德宮의 建設은 光海君 9年(1617)에 始作[10]하여 3年이 걸려 同王 12(1620)年 10月에 完成[11]한 것으로 그 名稱도 '西別宮, 慶德宮, 새문안대궐[12], 西闕' 등이었다.

그 중 '새문안대궐'이란 塞門洞에 있었다는 것에서 起因하며, '西闕'이란 昌德宮이 '東闕'이라는 것에 對가 되는 表現으로 그 位置上 西部 餘慶坊에 자리하였던 宮이다. (圖 1 參考)

이와같은 慶熙宮內에서 文獻閣의 位置는 圖 2와 같을 것으로 이는 《宮闕志》를 中心으로 하고 《新增東國輿地勝覽》, 《漢京識略》을 參考로 하여 現存하지 않는 慶熙宮을 圖解하여 본 것이다.

특히 文獻閣에 관한 《宮闕志》의 記錄을 보면,

> …景賢堂 乃東宮受禮之正堂 在養德堂南 有四門 東曰協和 又其東曰萬祥 西曰淸華 曰通賢 南曰崇賢 北曰崇德 又其西北曰日中 東有閣曰文獻 藏書之所也…[14]
>
> …文獻閣卽 景賢堂東行閣…[15]

이라 하여 景賢堂은 養德堂의 남쪽에 7個所의 門으로 둘러 싸여 있는 東宮

9) 柳本藝, **漢京識略**(서울 : 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會, 檀紀 4289(1956)), 影印本, p. 53.
「慶熙宮 在西部 餘慶坊 初號慶德宮 光海丙辰 拟建 英宗庚辰 以與 章陵諡號 同音 改慶熙…」
10) **光海君日記**, 光海君 9年(1617) 6月 甲辰
11) **上揭書**, 光海君 12年(1620) 11月 丙子
12) 李哲原, **王宮史**(서울 : 舊王室, 檀紀 4287(1954)), p. 101.
14) **宮闕志**, p. 110.
15) **上揭書**, p. 129.

이 受禮를 하는 곳이다. 이 동쪽에 文獻閣이 있어서 慶熙宮의 全體로 볼 때는 中心이 아닌 가장자리에 位置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Ⅲ. 文獻閣 設立의 歷史的 背景

1. 廂庫와의 關係

文獻閣이 廂庫의 朝鮮本을 整理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라 앞에서 言及하였으나, 이 廂庫와의 關係를 다룸에 있어서 先行의 硏究 들에서는 본 硏究와는 달리 廂庫를 文獻閣의 一部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즉, 白麟님은 《韓國圖書館史硏究》에서,

> …〈廂庫〉는 慶熙宮內에 있던 文獻閣의 일부로서 鄕本 즉 朝鮮本을 藏置한 書庫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文獻閣의 藏書도 貞蹟堂의 藏書와 함께 奎章閣으로 옮겨졌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16]

고 하여 이는 廂庫를 文獻閣의 一部로 보는 처음의 硏究였다.

그밖에 이와 같은 見解를 보이는 硏究로는 李杏淑[17]님과 李朝赫[18]님의 言及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廂庫를 다룸에 있어서 대부분의 硏究는 《宮闕志》의 記錄에 依據하고 있어서 이를 보면,

> …文獻閣 即景賢堂東行閣〔原〕肅宗二十六年庚辰年建 藏書籍 肅廟御製文獻閣銘并小序曰 大內藏書凡有三所 一曰養心閣 一切藏諸唐板 二曰欽文閣 三曰廂庫 皆藏鄕本…[19]

라 하여 慶熙宮內의 册을 두는 藏書處로 廂庫를 들고 있으며 養心閣이 中國本을 所藏하였던 것에 비하여 文獻閣은 欽文閣과 더불어 朝鮮本을 所藏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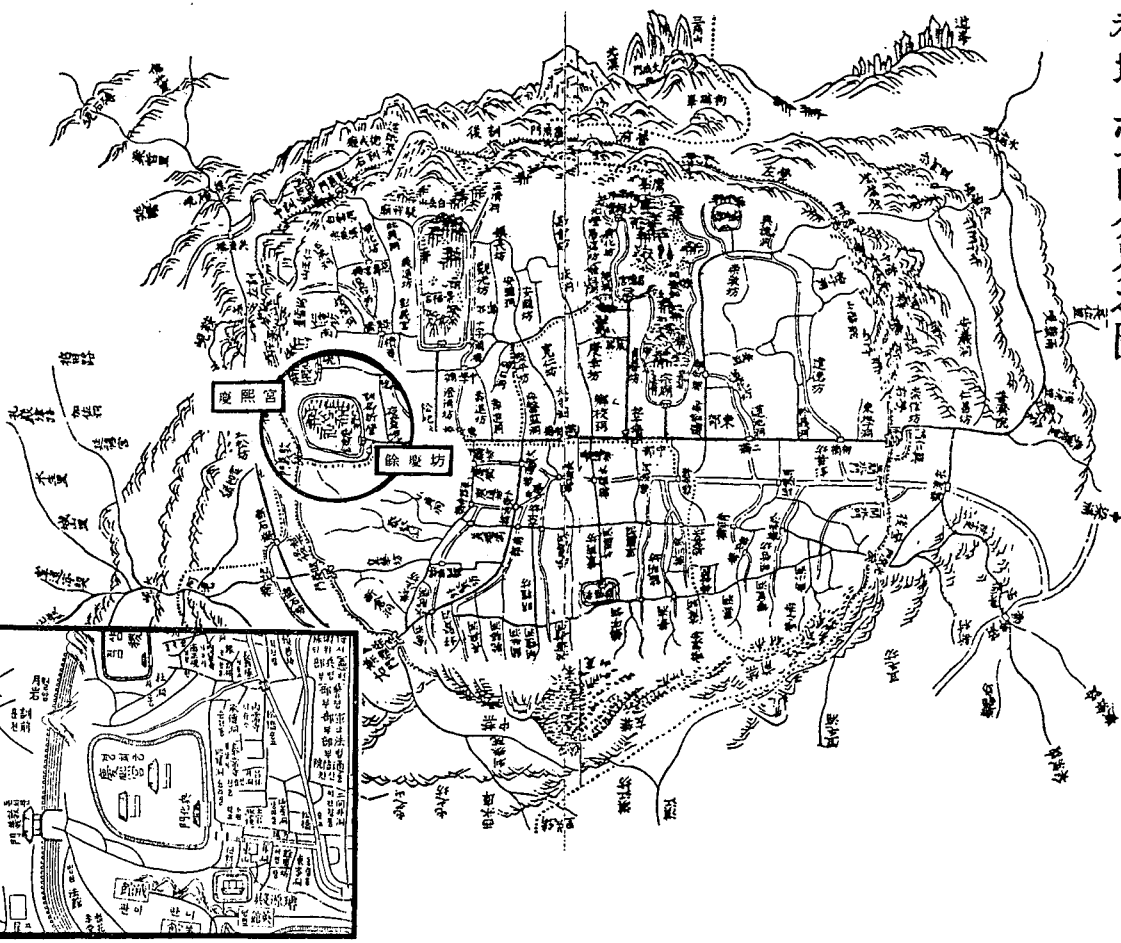
16) 白麟, **前揭書**, p.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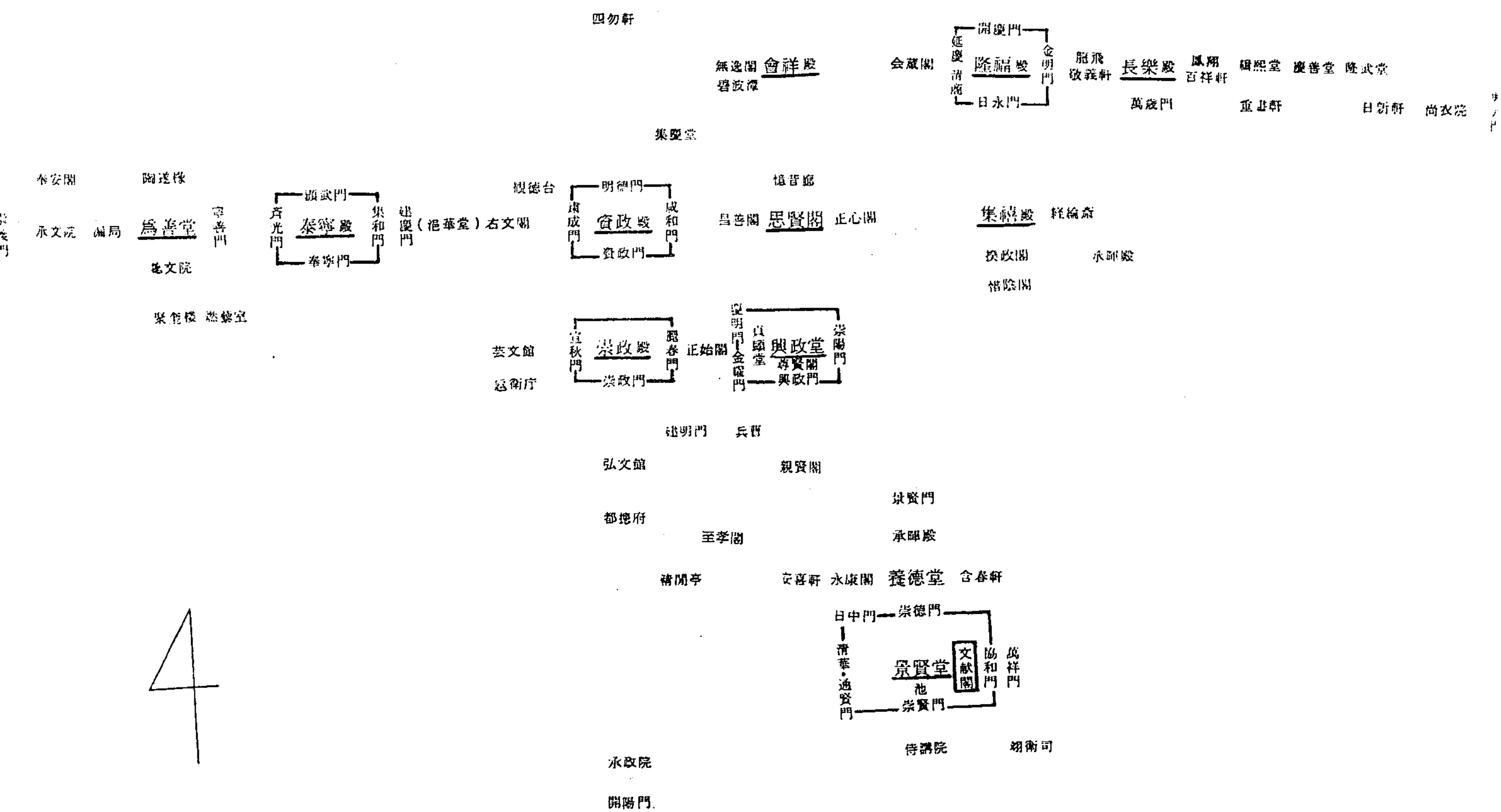
17) 李杏淑, "奎閣藏書의 構成에 관한 硏究," **未刊本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3. p. 47.
「…慶熙宮內의 文獻閣의 일부로서 鄕本 즉 朝鮮本을 所藏한 書庫가 廂庫이고…」

18) 李朝赫, "奎章閣設置의 由來(下)," **도서관**, 第31卷, 第7號(1976, 7·8), p. 63.
「…奎章閣圖書中에는 〈廂庫〉라는 藏書印이 찍힌 圖書가 많다. 이 廂庫는 慶熙宮內에 있던 文獻閣의 一部로서…」

19) **宮闕志**, p. 129.

都城三軍門分界之圖




四勿軒
無逸閣
會祥殿
碧波潭
会蔵閣
開慶門
延慶
清讌
隆福殿
日永門
金明門
翔飛
敬義軒
長樂殿
萬歲門
鳳翔
百祥軒
緝熙堂
重華軒
慶善堂
隆武堂
日新軒
尚衣院
集賢堂
奉安閣
陶送樓
承文院
編局
爲善堂
寧善門
觀文院
聚雀樓
燕寢室
顯武門
齊光門
泰寧殿
集和門
奉寧門
建慶門
（泓華堂）右文閣
觀德台
明德門
肅成門
資政殿
成和門
資政門
協音廊
昌善閣
思賢閣
正心閣
集禧殿
軽綸齋
燕政閣
承訓殿
惜陰閣
芸文館
宜秋門
崇政殿
麗春門
崇政門
正始閣
宣明門
金耀門
貞觀堂
興政堂
尊賢閣
興政門
崇陽門
建明門
兵曹
弘文館
親賢閣
集賢門
都摠府
至孝閣
承暉殿
清閑亭
安喜軒
永康閣
養德堂
含春軒
日中門
崇德門
清華•通賢門
崇賢堂
池
崇賢門
文獻閣
協和門
萬祥門
侍講院
翊衛司
承政院
開陽門
4

음을 보여 준다.

즉 先行의 硏究에서 이러한 記錄으로부터 廂庫를 文獻閣의 一部로 보는 것 같으나 실제로 本考에서 考究한 바로는, 文獻閣은 廂庫라는 여러 물건을 두는 倉庫에서 오직 그 所藏圖書만을 整理하기 위하여 세워진 書庫라 여겨지므로 廂庫를 文獻閣의 一部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側面에서 그 根據를 찾을 수가 있다.

첫째, 文獻閣 設立의 目的에 대한 것으로 先行의 硏究에서 引用한 《宮闕志》의 繼續된 說明部分에서 그 始末을 밝히고 있는 바로 肅宗의 御製文獻閣銘과 小序에 의하여 그 關係를 알 수가 있다. 즉 《宮闕志》에 나타난 設立의 目的으로는,

> …생각컨대 이 廂庫의 책이 가장 規模가 커서 전에는 一定하게 두는 곳이 없어 쉽게 옮겨질 때가 많았으므로 部와 秩이 分散되고 책상위에 흩어져 있어 그 더럽혀지고 훼손되어 상하는 바가 어린 아이들과 奴婢, 비바람, 벌레, 쥐 뿐만 아닌지라 실로 德에 累를 끼치게 되었다.
>
> 내가 이를 근심하여 慶德宮 養德堂 남쪽의 땅을 택하여 마땅히 一閣을 세워 부르기를 文獻이라 하였다. 銘에 이르기를 書閣을 보건대 景賢의 옆에 '文' 그리고 '獻'이라는 새로운 편액이 빛나고 많은 책들이 所藏되어 있어 善과 惡의 있음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20]

한 것을 보면 文獻閣은 廂庫의 所藏册들을 整備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은 書庫인 까닭에 廂庫를 文獻閣의 一部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겨진다.

둘째, 廂庫의 性格과 機能을 調査하여 보면 廂庫란 그 主目的이 宮中倉庫의 一種으로 貢物이나 錢穀, 官需用品 등을 주로 保存·出納시키던 곳으로 그 性格이 文獻의 蒐集이나 保存·利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만 內需의 여러 物品을 保存하는 가운데 圖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0) **宮闕志**, pp. 129~130.
「…焉惟是廂庫書籍 最號浩穰 而曾無一定之處 多有移易之時 分散部秩 狼籍几案 其所點汚毁傷 不啻童幼婢妾 風雨虫鼠而已 實爲累德也 予爲是懼 乃於慶德宮 養德堂之南擇之 宜別治一閣 命名文獻 悉以藏之 蓋出於 愛護典籍之意云爾 銘曰相彼書閣 景賢之傍 曰文 曰獻 新額煌煌 千卷萬秩 于以藏之 有善有惡 皆吾之師…」

먼저 廂庫의 存續을 《實錄》의 記事를 통하여 볼 때 그 設立의 時期를 上考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中宗 23年(1528)에 이르러 그 管理體制가 소홀하여[21] 錢穀의 出納에 지장이 많았으며, 純祖 32年(1832)에는 3年前인 純祖 29年(1829)에 燒失[22]된 慶熙宮의 隆福殿, 集慶堂, 會祥殿 등을 改建할 때 같이 修補[23]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廂庫는 舊韓末까지 存續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內需司에서 編纂하였던 《內帑庫會計册》[24]에 의하면 高宗 30年(1893)까지 廂庫에 들어오고 나간 會計品目을 收錄하고 있는 事實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參考로, 《內帑庫會計册》에는 高宗 9년(1872)부터 高宗 30년(1893)까지 黃金, 天銀, 錢文, 木布, 訓局木 등의 會計品目이 前遺在·奉上·上下·時遺在의 순서로 들어오고 나감을 記錄하고 있다. 그 중 廂庫에 관하여는 '廂庫來'로 들어온 명색을 나타내고 나간 명색은 '廂庫'라 記錄하였다.

한편 廂庫의 特性에 대하여는 앞서 言及한 黃金, 天銀, 錢文, 木布 이외에도 穀, 弓, 木綿[25] 등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諸庫 중에서 王室의 私的인 倉庫와 같은 性格이 많았다.

《實錄》의 記事에 의하면 비록 그 差異는 없지만 尙衣院과 廂庫의 差異로 尙衣院을 公的인 機關으로 廂庫는 私的인 機關으로 區分[26]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尙衣院의 御衣樹를 進供하고 궁중의 財物과 寶物을 맡아 보았던

21) **實錄**, 16, p. 626 上右. 中宗 23年 戊子(1528) 2月.
「…禁府啓曰 有錢穀各司 賊竊發則 晝夜直官員 坐罷之事 已於癸未年受敎 而頃者 知廂庫內官等 照律時 未及考 此受敎 而以公罪 照律檢律則 當請推矣 內官照律公事 改照乎 傳曰 廂庫則內官不爲常直 而幸有出入之物則 開閉而已 但其出入之際 不謹看守…」

22) **實錄**, 47, p. 331 上左. 純祖 29年 己丑(1829) 10月 甲子
「…午時 慶熙宮差備內失火 起自會祥殿朱簾 延及隆福殿 興政堂 正始閣 集慶堂 思賢閣月廊諸處 幾半毁撤…」

23) 西闕營建都監編, **西闕營建都監儀軌**(同都監, 純祖 32(1832)), *l.* 97E.
「…宮南行閣 廂庫修補所入 椽三十三箇 柱一箇…」

24) 內需司編, **內帑庫會計册**(內需司, 高宗 30(1893)頃), 2册, 寫本(奎 19013의 1).

25) **實錄**, 20, p. 276 下左. 光海君 6年 甲寅(1614) 7月.
「…傳曰 鼎紬四目 木綿十目 布六目 廂庫進…」

26) **實錄**, 19, pp. 218 下左~219 上右. 仁祖元年乙巳(1623) 4月 甲午
「…以院中議啓 天使所贈物件 請勿級廂庫 令尙衣院 處置何如 而未蒙允兪 臣甚缺然 廂庫與尙衣院 雖以無異 廂庫則私而 尙衣院則公也 舍公而取私 臣恐有所不可也 況祖宗朝 所無之事 而出於近來乎 必有司出級然後 可謂 示民以正 而節用愛民之心 亦存乎其間矣 上曰詔使所贈 令入之廂庫者 非有所私……啓欲 上無私嗇 而公共之義…」

官衙[27]라는 점을 고려하면 廂庫의 性格 역시 이와 비슷하되 王室倉庫의 私的인 性格이 濃厚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廂庫의 性格을 나타내는 補充的인 資料를 든다면, 財物의 種類에 따라 保管과 취급이 달랐음을 推測하게 하는 것으로 廂庫내에 弓房이 따로 있어서 部將 한 사람을 선정하여 軍士를 거느리고 엄중히 지켰다는 것[28]이다. 또 廂庫가 주로 物件을 保管하였던 곳이라는 것은 正祖가 指示한 度量衡統一의 事實에서도 보이는 바로, 廂庫 등 各庫의 斛量衡尺이 다름으로 다시 모아서 改善하도록 명하는 것[29]에서 보는 것과 같이 度量衡은 物件을 재는 것으로 書籍과는 無關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結果를 통하여 볼 때 廂庫는 文獻閣의 一部로 볼 수 없으며 王室과 官需의 여러 物品을 保存하고 出納함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廂庫의 書籍, 즉 文獻閣을 이룬 基礎 藏書는 廂庫의 여러 物品 중에서 書籍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累積으로 말미암아 肅宗 26年(1700)에 마침내 整備를 보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廂庫와 文獻閣의 關係는 廂庫가 書籍을 意圖的으로 蒐集하거나 保存하였던 곳이 아니며 肅宗에 이르러 廂庫의 書籍을 整理하여 새로 書庫를 지은 것이 文獻閣이다.

2. 文獻閣 設立의 時代的 背景과 그 意義

文獻閣 設立의 意義는 肅宗 때의 時代的, 文化的 背景에 의하여 찾아 볼 수가 있는 바, 當時의 代表的인 國立圖書館의 역할을 遂行한 곳은 弘文館이었다.

弘文館은 史的인 면에서 成宗 10年(1479) 己亥에 藝文館을 改稱하였다[30]가

27) 柳本藝, 前揭書, p. 123.
「…尙衣院 在丹鳳門內 掌供御樹 及 內府財貨 金寶等物…」

28) 實錄, 20, p. 215 下左. 光海君 6年 甲寅(1614) 4月 22日 甲寅
「…大內西南墻外 各別巡邏嚴守 且廂庫弓房 部將一員擇定 量率軍士嚴守……廂庫弓房把守軍士 勿爲出用…」

29) 增補文獻備考, 中. p. 138 上右.
「…正祖元年 傳曰 經曰同律度量 志曰規矩準繩…(中略)…況在先朝飭敎尤何等諄複 而一味因循制 各有異殊 非經傳之本意 有關民 瘼之一端 今以廂庫等處 行用者言之 庫各不同不特錙銖之相差……自內各處 所用斛量衡尺 自該曹一并收聚 准式釐改……」

30) 弘文館志, 李魯奉等受命編〔서울〕: 芸閣, 正祖 8年(1784)), l. 1B. 建置條. 1冊. 活字本(壬辰字) 奎章閣藏(奎 941).
「…十年己亥 又因大臣建白 本館改稱 弘文館 而別置藝文館 於古書庭廳…」

燕山君 11年(1505) 乙丑에 革罷되고 일시 進讀廳으로 하여금 그 役割을 擔當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中宗 1年(1506)에 다시 成宗 때와 같이 還元[31]하여 奎章閣이 設置될 때까지 代表的인 圖書館의 機能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昌德宮에서는 弘文館의 活動이 있었으며, 仁祖 4年에 重建된 尊經閣[32], 역시 같은 慶德宮 내의 欽文閣이나 養心閣에서 圖書館의 機能을 수행하는 가운데 設立된 文獻閣은 鄕本 즉 朝鮮本만을 所藏하고 다루었다는 점에서 후에 建立된 奎章閣의 西庫와 그 脈을 같이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肅宗 26年(1700)에 세워진 文獻閣은 王命에 의하여 建立되어진 만큼 그 設立의 意義는 王의 右文에 대한 關心과 時代的인 背景을 關聯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

물론 文獻閣의 設立 自體만으로 肅宗의 學問이나 圖書館에의 關心을 斷言할 수는 없지만, 文獻閣 設立의 時期로 볼 때 당시는 政治的인 混亂과 더불어 繼續되는 自然的인 災禍로 말미암아 實際로 圖書의 整理와 같은 文化面에서 關心을 나타내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나 특별히 廂庫의 東本을 整理하고 文獻閣을 세웠다는 것은 肅宗이 文物制度 整備에 늘 關心을 두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思料된다. 즉 政治的 混亂의 面에 있어서는 '庚申大出陟', '己巳換局', '甲戌換局'으로 이어지는 政變속에서 張禧嬪事件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自然的인 災禍面에 있어서는 肅宗 15年(1689)부터 10年이 넘도록 거의 매년 凶年[33]이 들어 肅宗은 賑恤이나 備忘記로 백성들에

31) 李肯翊編, **燃藜室記述別集**, **上**(서울 : 景文社, 1976), 影印本, p. 398.
「…燕山十一年乙丑 罷弘文館 改經筵 爲進讀…」
32) 李春熙, "尊經閣考," **大東文化研究**, 第10輯(1975, 12), p. 169.
33) ① **實錄**, 39, p. 234 下左. 肅宗 16年 庚午(1690) 12月 癸酉
「…召對玉堂官 校理沈仲良 言承召上京時 所經大村十空七八…」
② **上揭書**, p. 268 下右. 肅宗 18年 壬申(1692) 7月 丁丑
「…是月諸路大水 民家漂沒數千戶 死者甚衆…」
③ **上揭書**, p. 281 上左. 肅宗 19年 癸酉(1693) 6月 癸未
「…時淫雨久不霽…」
④ **上揭書**, p. 372 下左. 肅宗 21年 乙亥(1695) 4月 壬辰
「…是歲大旱 凄風連吹 繁霜屢降 兩麥不稔 播穀愆期 大歉…」
⑤ **上揭書**, p. 401 上左. 同年(1695) 11月 丙寅
「…備局啓請 京城內 轉乞饑寒亡食 各部一一報知 隨則救活…」

게 呼訴하는 등 救濟策에 腐心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獻閣을 새로이 세웠다는 점은 圖書館史에서 볼 때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아뭏든 이와 같은 肅宗의 學問에 대한 關心은, 文獻閣의 設立으로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려운 國政에도 不拘하고 文運整備나 書院整備, 奎章閣의 設立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肅宗의 學問的 關心을 朝鮮時代 歷代 王들과 比較하는 基準으로, 이 硏究에서는 經筵에서 工夫하거나 講論한 書册만을 對象으로 比較하였다. 이에 의하면 集賢殿 등으로 學問을 振作시킨 世宗은 經筵에서 《大學衍義》, 《律呂新書》, 《性理大全》 등 약 22種[34]을 敎材로 하였으며, 成宗이 講義敎材로 《高麗史》, 《家語》, 《文獻通考》 등 약 29種[35]을 經筵이나 夜對에서 하였고, 英祖가 37種[36]을 工夫하였다. 그러나 朝鮮時代의 文化的 繁榮期에 文藝

〈表 1〉 登極後 經筵進 講册子次第

書 名	期 間	所要期間	年 齡
	(同書 3卷부터)		
論 語	1674年 12月 20日~1676年 3月 5日	1年 2個月	14~16歲
孟 子	1676年 3月 20日~1677年 9月 15日	1年 6個月	16~17歲
中 庸	1677年 9月 24日~1678年 4月 26日	7個月	17~18歲
書 傳	1678年 5月 1日~1680年 10月 11日	2年 5個月	18~20歲
詩 傳	1680年 10月 16日~1683年 4月 11日	2年 6個月	20~23歲
心 經	1681年 1年 11日~1685年 6月 5日	4年 5個月	21~25歲
周 易	1685年 6月 9日~1690年 9月 11日	5年 3個月	25~29歲
大學衍義	1690年 11月 2日~1697年 3月 27日	6年 4個月	29~37歲
聖學輯要	1697年 4月 11日~1701年 6月 1日	4年 2個月	37~41歲
春秋集傳	1702年 1月 29日~1709年 3月 21日	7年 2個月	42~49歲
禮 記	1709年 4月 12日~		49歲

⑥ **上揭書**, p. 464 下右. 肅宗 23年 丁丑(1697) 7月 癸未
「…下備忘記記意 國家不幸 儀鑾荐臻 八路元元…」

⑦ **上揭書**, p. 538 上左. 肅宗 25年 己卯(1699) 8月 癸酉
「…先朝辛亥壬子年間 癘疫凶歉 無異今歲…」

34) 權延雄, "世宗朝의 經筵과 儒學," 韓國精神文化硏究院編, **世宗朝文化硏究**(Ⅰ) (서울 : 博英社, 1982), pp. 77~78.

35) 權延雄, "朝鮮 成宗期의 經筵," 國際文化財團編, **韓國文化의 諸問題**(서울 : 時事英語社, 1982), p. 75.

36) 經筵廳編, **列聖進講册目錄**([서울] : 同廳, 英祖 29(1763) 筆寫), 寫本. 1册. 藏書閣藏(2-4655), *l.* 5A~*l.* 8B.

를 崇尙하고 恭敬하였던 이들 好文王들과 比較하여 肅宗은 그 在位期間에 비하여 11種[37](〈表 1〉 參照)을 工夫하여 그다지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召對를 통하여 徐居正의 《東國通鑑》, 李珥의 《聖學輯要》[38], 宋時烈編의 《節酌通編》과 같은 朝鮮人 著作을 比較的 많이 다루었으며 이 중 《聖學輯要》는 처음으로 講論된 것으로 여기에 대한 關心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一例이다.

한편 肅宗은 經筵을 통하여 自身의 工夫를 하였을 뿐 아니라 世子의 工夫에도 關心을 두어 親製序文를 내리고, 또 先王의 行狀[39], 列朝의 受敎[40]나 寶鑑[41]을 編纂·整理함으로써 비록 당시의 政治·經濟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文風의 振作에 많은 努力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가 있다. 특히 世子를 위하여 千字文[42]과 小學[43]의 序文을 親製하여 내리고 《儆戒十箴》[44]을 親製하여 世子에게 내려 敎導케 하였으며, 그밖에 親製한 것으로는 《大明集禮》[45]의 序文과 《孟子諺解》[46]의 跋 등이 있다.

이상에서 든 學問的 關心을 바탕으로 肅宗은 當時의 文風과 士習을 整備

37) **上揭書**, *l*. 1B~2A.

38) **實錄**, 39. p. 455 上右. 肅宗 23年 丁丑(1697) 4月 庚申
「…御晝講 是日上初講 聖學輯要…殿下繼述之志 亦可有光於聖祖…」

39) **實錄**, 38. p. 600 上右. 肅宗 8年 壬戌(1682) 9月 戊申
「…右議政 金錫胄曰 先王行狀 曾於庚申 有令臣改撰之命…以一人 叅疊製誌狀 亦步苟簡宜 令曾經主文之人 製進 上命兵判南九萬製進…」

40) **上揭書**, 39. p. 107 上右. 肅宗 13年 丁卯(1687) 8月 戊午
「…命備局提調一人 及堂下文臣二三人 收聚 大典續錄 及列聖受敎禀裁刊行…」

41) ① **上揭書**, 38. p. 687 下右. 肅宗 10年 甲子(1684) 4月 癸丑
「…左參贊李端夏上劄 繳進 宣廟寶鑑五册…」
② **上揭書**, 39. p. 532 上左~下右. 肅宗 25年 己卯(1699) 6月 丙午
「…故相臣 李端夏 受國朝寶鑑續編之命 而未及成此書…時有裒聚增續者云…上並可之」

42) **上揭書**, 39. p. 250 下右. 肅宗 17年 辛未(1691) 閏 7月 戊寅
「…上親製 千字序文 下春坊 春坊請刊出辨卷待 東宮開筵 以此文進 講詩之…又思惟春宮 方講習是書 而性旣聰明 心智日長加意…」

43) **上揭書**, 39. p. 290 下左. 肅宗 20年 甲戌(1694) 1月 乙卯
「…上親製 朱文公 小學序文 使之辨于篇首…」

44) **上揭書**, 39. p. 291 上右. 同日
「…上又親製 儆戒十箴 以賜世子 其法三朝箴…」

45) **上揭書**, 39. p. 260 上右. 肅宗 18年 壬申(1692) 1月 辛未
「…上親製 大明集禮序文 下政院使之一體繕…」

46) 宣祖命撰, **孟子諺解**(肅宗 19年(1693)), 跋. (奎 173)
「…御製御筆元宗大王御書孟子諺解跋…歲在癸酉孟夏之月旣望」

하고자 太學이나 成均館에 나아가 文士들을 誡諭하고 敎를 내렸으며, 文獻閣이 設立되기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書院의 弊端을 論議하고 疊設을 禁하는 등 文運整備에 많은 努力을 기울였다.

肅宗 7년(1681)에 王은 당시의 士習과 學政이 紊亂하여짐을 근심하여 成均館에 나아가 敎를 내려 大司成으로 하여금 李珥의 《學校模範》으로써 學政을 바로잡도록 講論하게 하였다.[47] 그러나 그와 같은 肅宗의 意圖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肅宗 17年(1691)에 까지 士習이 바르게 잡히지 않자 王은 太學에 나아가 다시 敎를 내려 工夫하는 선비로 하여금 몸을 닦고 學業에 精進하도록 訓導[48]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書院의 整備에 있어서는, 당시 金萬重이나 尹德駿 등이 書院疊設에 대한 弊害를 여러 차례 論하고 肅宗도 이를 염려하여[49] 定制를 만들고 禁하게 하였다. 肅宗年間에 있었던 書院疊設의 禁令[50]은 모두 12차례나 되고 文獻閣의 設立以前으로 볼 때는 여섯 차례가 된다.

이와 같이 肅宗은 당시의 學風刷新을 위하여 여러 차례 努力하고, 더불어 書籍의 編纂 등에서도 關心을 보였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努力을 바탕으로 書籍의 刊行과 配布·保存 등에 制度的인 整備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 奎章閣의 設立, 文獻閣의 設立, 印刷圖書의 配布, 새로운 活字의 鑄造와 같은 일련의 文化事業들이었다.

먼저 書籍의 刊行에 있어서 특히 活字印刷는 17世紀에 사용하였던 戊申字, 顯宗實錄字가 계속 쓰이고 있었으며, 肅宗朝에 들어와 새롭게 이루어진

47) 李定求編, **四千年文獻通考**(京城：東明社, 1926), *l.* 196B.
「…近年以來 學校之政 廢弛 須修明然後 可以正士習 而淑人心也 其令大司成 取先正臣李珥所著學校模範 參以今日應行者 講正行之…」

48) **上揭書**, *l.* 200B.
「…噫 設庠序學校 以養四方之士者 豈徒作文于祿而已哉…誠能學之博 擇之精守之約則 祿不于而自至矣 竊觀比來 士習不古經明行修 曉達治體者少 而尙文 辭遺經業 竊祿利者 滔滔有之 斯豈我祖宗興學 作人之本意哉 濟濟章甫密邇咫尺 上下情志藹然流通…咨爾多士 敬聽予訓 服膺勿失…」

49) **實錄**, 40. p. 683 上右. 肅宗 43年 丁酉(1717) 11月 丁卯
「…上曰 書院之弊 未有甚於近日 故欲防此弊 禁其疊設…」

50) 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硏究：特히 書院文庫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8.

것으로는 丙辰倭諺大字[51], 韓構字, 芸閣印書體字, 元宗字 그밖에 觀象監에서 使用한 活字[52]들이 있었으니 이 때의 活字들은 後代에 많은 影響을 주게 되었다.

書籍의 保存面에 있어서는 奎章閣을 들 수가 있어 비록 御製·御定類에 限定되긴 하였으나, 前代의 世祖朝 梁誠之의 設立建議가 처음으로 實施되어 御製詩文을 奉安하였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가 있다. 이 奎章閣은 肅宗이 同王 20年 甲戌(1694)에 小閣을 宗正寺내에 別建하여 御製御書를 奉安하게 하고 親筆로써 扁額을 붙였던 곳[53]이다.

한편 書籍의 配布面에서는, 書籍이 不足한 곳에 制度的으로 중앙의 校書館에서 書籍을 刊行할 때마다 보내도록 한 例로, 濟州牧에 書册이 없어 册板이 있는 곳에서 印刷하여 보내게 하고 그 以後로는 刊行할 때마다 보내어 藏置하게 하였음[54]을 들 수가 있다.

以上과 같이 여러 면에서 살펴 본 것처럼 文獻閣의 設立도 肅宗朝에 있어서 文化整備事業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당시의 政治·經濟·社會의 어려운 局面중에 設立되었음은 그만큼 庫庫의 朝鮮本이 混亂되어 整理가 시급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이는 肅宗의 學問的 關心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3. 肅宗末期의 黨爭과 書籍文化의 受難

肅宗은 在位期間이 46年으로 英祖다음으로 길었던 王이었으나 黨爭과 禧

51) 尹炳泰, "倭諺大字考 : 諺解新語를 中心으로," **도서관**, 第30卷, 第4號(1975, 4), pp. 54~68.

52) 尹炳泰, "朝鮮時代 活字使用考," **奎章閣**, 2(1978), pp. 64~65.

53) ① **日省錄**, 正祖 5年 辛丑(1781) 1月 15日條
「…內閣之名 始於光廟朝丙子 而中廢矣 奎章閣之號 又始於肅廟朝甲戌 而御書扁額至今在宗正寺 何幸予小子服嗣後追述建閣 從近移奉本閣懸揭事 分付…」
② 奎章閣編, **奎章閣志 : 初草**(ie 再草), *l.* 10B. 建置條. 奎章閣藏(奎 1400)
「…上敎曰 內閣之稱 奎章之名始於 光廟丙子 奎章閣之扁 又在於肅廟甲戌 而御書扁額至今在宗正寺…」

54) **備邊司謄錄**, 4. p. 883 上右. 肅宗 26年 庚辰(1700) 2月 22日.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59), 影印本.
「…領議政 徐[文重]所啓 濟州乃是兵火所不及處 公私書籍 自古有藏置之規 而中間廢閣 而不行者久矣 即者濟州牧使 報于本司 以爲海外書籍甚少 諸得大典續錄 無寃錄 律文等册云 此則自當分付有册板處 使之印送 而自今以後 每於書册印出時 自校書館 印送一件於無州 以爲藏置之地 似好矣 上曰爲之…」

資 張氏로 인한 宮中의 紛糾 등으로 許多한 獄事를 치렀음은 周知의 事實이
다. 그 중에서 己巳士禍(1689), 甲戌獄事(1694) 등의 事件을 代表的으로 들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影響은 肅宗末期에 이르러서는 文筆에까지 미치게
되어 洪萬鍾의 《東國歷代總目》, 崔錫鼎의 《禮記類編》, 《類編辨論》과 兪棨의
《家禮源流》, 尹宣擧의 《魯西遺稿》 등이 爭論의 촛점이 되기도 하였다.

肅宗은 위에서 든 老論과 少論의 黨爭을 通하여 그 弊端이 極大함을 느끼
고 同王 24年(1698)에는 드디어 蕩平의 道理를 促求하기에 이르렀으니,

> …己卯引見大臣…上曰君上則 意在痛斥黨論 而臺諫則必欲扶植黨論 或曰率口而發 或曰偶因言端而發告 君之辭豈容如是…[55]

와 하여 臺諫들의 弊害를 論하면서 黨爭을 革罷할 것을 말하였다.

그 뒤에도 繼續하여 蕩平의 道를 主張하였으니,

> …備忘記 噫國家不幸東西標榜遍來 百年輾轉沉痼可勝歎哉…以盡蕩平之道 惟爾諸臣 澡心易慮 毋如前日之爲用勉共濟之圖 而至於是非所在 不可不一定 而不撓有誣詆賢爾仲救囟黯者則 投界有北以嚴應惡焉…[56]

이서 보는 바와같이 黨爭을 없애려고 많은 努力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肅宗의 蕩平意思에도 不拘하고 또 다시 爭詰이 일어나기
始作하니 드디어 肅宗 29年(1703)부터는 著作物 즉 圖書에까지 그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同王 29年(1703) 5月[57]에 金鎭圭 등의 上疏에 의하여 金長生著의 《經書辨
疑》가 逐條辨破를 당하였다.

이를 起點으로 다시 同王 33年(1707年)에는 持平 金始煥이 啓[58]로써 洪萬
宗著의 《東國歷代總目》의 刊行을 막고 그 刊本을 收聚하여 傳布하지 못하게

55) **實錄**, 39. p. 481 下右. 肅宗 24年 戊寅(1698) 1月 己卯
56) **上揭書**, p. 483 下右. 肅宗 24年 戊寅(1698) 1月 乙未
57) **上揭書**, 40. p. 25 上左. 肅宗 29年 癸未(1703) 5月 庚戌
「…至是 副護軍金鎭圭又上疏 就坦及李翼明所引 經書辨疑 逐條辨破略曰…」
58) **上揭書**, 40. p. 266 上左. 肅宗 33年 丁亥(1707) 7月 戊辰
「…持平 金始煥 啓曰 本朝事實之所刊者…臣得見 前參奉 洪萬宗 所撰 歷代總目…當初芸閣之許令纂輯固是失着…請令該曹 收聚刊本 俾勿傳布 所撰人洪萬宗 亦命定配…上不允…」

請하였으나 肅宗이 許諾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修正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關聯하여 崔錫鼎이 報告한 바를 보면,

> …辛巳…都提調崔錫鼎曰 故相臣申琓 爲芸閣提調時 使洪萬宗 撰集東國歷代總目
> 令本館印出書中 略有褒貶子 奪而印出不多 固無煩傳之慮 萬宗雖有猥妄之失 定酉
> 則過 上曰置之錫鼎請進數件 上從之…[59]

에서 申琓이 洪萬宗으로 하여금 《東國歷代總目》을 만들게 하였으며 또 잘못된 곳을 고쳤음을 알 수가 있다.

이 《東國歷代總目》은 現在 奎章閣圖書에 몇 帙이 남아 있으며 肅宗 31年(1705) 顯宗實錄字로 刊行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東國歷代總目》이나 《經書辨疑》 등이 크게 問題化되지 않았던 緣由에는 肅宗의 蕩平策이 어느 程度 作用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老·少論은 肅宗의 蕩平策에 따라 一種의 聯立政權을 構成하였으나 爭論은 그치지 않아 肅宗 34年(1708)에까지 肅宗, 領議政 崔錫鼎, 左議政 李濡, 右議政 서종태 등이 蕩平의 道理를 강구하려 애썼다.[70]

그러나 肅宗 35年(1709)에 崔錫鼎의 《禮記類編》으로 말미암아 蕩平의 道가 完全히 깨어지고 다시 黨爭이 深化되고 文籍이 그 對象이 되기에 이르렀다.

肅宗 35年(1709)에 編纂된 崔錫鼎의 《禮記類篇》 15卷은 經典을 變亂하고 朱子의 說을 어긋나게 한다는 論爭[61]으로 結局 그 해 6月에 崔錫鼎이 다시 《類篇辨論》[62]을 쓰고 領議政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禮記類篇》은 다음해 肅宗 36年(1710)에도 正言 李喬岳 등의 啓에 따라 板本이 毁去되는데 이르렀으며[63] 이틀 뒤에 肅宗이 所藏하던 冊까지 불태워버리게 되었다.[64]

---

59) **上揭書**, 同面下左. 肅宗 33年 丁亥(1707) 8月 辛巳

60) 李瑄根, **大韓國史**, 5(서울 : 新太陽社, 1973), p. 362.

61) **實錄**, 40. p. 322 下右. 肅宗 35年 己丑(1709) 3月 丙寅
「…四學儒生 金道淳等 上疏論 禮記類編 請毁其板刻 焚其刊本還收…」

62) **上揭書**, (肅宗實錄補闕正誤). 40. p. 340 上右. 肅宗 35年 己丑(1709) 6月 壬寅
「…領議政 崔錫鼎疏進 類編辨論 冊子 其時章紛然 遂罷求罪…」

63) **上揭書** 40. pp. 346 下左~347 上右. 肅宗 36年 庚寅(1710) 3月 戊寅
「…正言李喬岳啓曰…請函命毁去 禮記類編 板本…上答曰…而啓依」

64) **上揭書**, 40. pp. 347. 肅宗 36年 庚寅(1710) 3月 庚辰
「…上出付頃年 崔錫鼎 所進 禮記類編十五卷 于政院 仍下禮曹 並與 頒賜臣僚者 而收聚火…」

朴世堂의 《四書思辨錄》 2册 역시 그러한 辨破를 면치 못하였으며[65], 丁時翰의 《辨誣錄》도 趙九輅 등의 上疏에 의하여 破毁되었다.[66]

그밖에도 肅宗 41年(1715)에는 兪棨의 遺書인 《家禮源流》를 그 孫子 兪相基가 刊行하면서 그 전해에 죽은 尹拯을 謀陷하는 權尙夏의 序와 鄭澔의 跋을 붙인 것이 禍根이 되어 所謂 '丙申處分'의 動機를 만들게 되었다.

尹拯은 肅宗에 의하여 오랫동안 儒賢으로 優待를 받아왔던 터이라 오히려 權尙夏와 鄭澔의 老論이 弱化되었다.[67] 그러한 老論의 逆功勢로 肅宗은 이듬해 問題의 宋時烈이 쓴 尹宣擧墓文과 尹拯이 쓴 辛酉擬書를 入內하여 보고 尹拯을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68] 이어 京畿道 儒生 申球등의 上疏에서 尹宣擧의 文集인 《魯西遺稿》 중에 孝宗을 誹謗한 語句가 있다는 것과 金昌集의 要求에 따라 先正의 稱號를 停止하고 드디어 《魯西遺稿》를 毁版하게 이르렀다.[69]

따라서 肅宗 43年(1717)에는 尹宣擧·尹拯 父子의 官衛을 追奪하고 7月에는 宋時烈의 文集을 刊行하게 하였다.[70]

뿐만 아니라 《家禮源流》를 政院에 내려 權尙夏의 序文과 鄭澔의 跋文도 更印하여 넣게한 후 保存하게 하였다.[71]

---

65) **上揭書**, 40. p. 340 下右. 肅宗 35年 己丑(1709) 6月 壬寅
「…未嘗禁 朴世堂思辨錄 誠若少背 於朱門 使世有儒 固不妨辭闢 而至於火書 罪人終歸黨論…」

66) **上揭書**, 40. p. 334 上左. 肅宗 35年 己丑(1709) 10月 乙酉
「…時故判書 趙絅後孫九輅等爲絅上申辨疏…〔丁〕好寬孫時翰作一冊 名曰辨誣錄 其徒趙浚宰晋州刊行之 李玄逸 李栻 李維樟 等爲序跋 頗詆絅有 曰抵前人所不道之言 至欲以好寬比 於李德馨 李恒福 李元翼 諸人之立節 九輅等 以此陳辨 上答曰 丁好寬之罪惡 與造誣無異 而趙浚輩肆 爲無倫之言 眩亂是非 誠可痛惋也 不可不嚴明處分 辨誣錄 板本 爲先毁破…」

67) 京畿道誌編纂委員會編, **京畿道, 上卷**(서울 : 同會, 1955), pp. 322~323.

68) **實錄**, 40. p. 598 上左. 肅宗 42年 丙申(1716) 7月 己未
「…上下敎曰 辛酉擬書 及 先正臣宋時烈 所撰 尹宣擧墓文並書入時 上稍厭時張所爲 復思士流而欲更考其是非 故有是命…」

69) 李瑄根, **前揭書**, pp. 363~364.

70) **實錄**, 40. p. 658 上右. 肅宗 43年 丁酉(1718) 7月 丙辰
「…藥房入診 診候畢提調閔鎭厚曰 先正臣宋時烈 歿已久矣 而文集尙未刊行 誠是欠事 今聞其子孫門生 方欲付之欹剞 而卷帙浩大 未易始工云 自校書館刊行 似爲得宜矣 上曰 曾前 同春集 亦以特命 刊出矣 今亦分付 校書館 刊行…」

71) **上揭書**, 40. p. 100 下左. 肅宗 42年 丙申(1717) 7月 壬戌
「…下家禮源流 于政院 命復印 權相夏序文 以入 後日又命鄭澔跋文 亦爲並存…」

특히 宋時烈의 文集인 《尤菴先生文集》[72]은 〈文獻閣書目〉에 著錄된 別集類 두種 중의 하나로 바로 이 때 芸閣印書體字로 刊行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여러 事實에서 볼 때 著述活動이나 書籍의 刊行活動마저도 黨爭에 의하여 犧牲되어 毁板이나 焚書, 復刊 등의 惡循環을 反復하였다.

그러나 肅宗朝 書籍文化의 全盤으로 볼 때 黨爭의 影響에도 不拘하고 더 發展할 수 있었던 分野는 譯官들에 의한 飜譯事業과 敎材編纂 등이라 여겨진다.

이는 당시에 己巳換局이나 庚申大出陟 때의 南人登場과 關聯되었던 譯官들의 活發한 活動에 起因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甲戌換局에 이르기까지 換局企圖에 참여한 계층을 보면 老·少論을 막론하고 譯官들이 그들의 換局企圖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73]는 것이다. 그밖에 中人勢力의 登場이나 庶孼層의 활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肅宗 역시 對內·外에 함께 유리한 基盤이 될 수가 있는 譯官의 힘을 利用한 것[74]이 바로 이와같은 現象에 背景的 要因으로 作用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譯官들이 文化上에 미친 影響은 여러 가지 敎科書를 새롭게 펴낸다든가 새로운 辭典類의 刊行으로 나타난다.

漢學譯官의 活躍으로 제일 먼저 登場한 것이 《朴通事諺解》[75] 3卷으로 이는 이미 中宗 때 崔世珍이 諺解한 일이 있었으나 後世에 散佚되어 肅宗 3年(1677)에 邊暹, 朴世華 등 12人에 의하여 새로 飜譯되었다.

同王 16年(1690)에는 愼以行, 金敬俊, 金指南 등이 지은 《譯語類解》[76] 2卷이 刊行되었던 바 《通文館志》에 의하면,

> …康熙壬戌 老峰閔相國 令院官 愼以行, 金敬俊, 金指南 質問於漢人 文可尙, 冀先甲 修正 至庚午 令院官 鄭昌周, 尹之興, 趙得賢 捐材刊板…[77]

72)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 따르면 零本을 包含하며 5帙이 있으나 〈文獻閣書目〉에 著錄된 것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芸閣印書體字로 刊行된 것이다.
73)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서울 : 一朝閣, 1983), p. 129.
74) **上揭書**, p. 172.
75) 奎章閣 所藏本 중(奎 1810)이 이에 해당한다.
76) 奎章閣 所藏本 중(奎 5651) 등 6帙이 이에 해당한다.
77) **通文館志**, 金指南編(서울 : 朝鮮古書刊行會, 大正 2(1913)), p. 182.

라는 記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으로 一種의 中韓對譯辭典이다.

이 《譯語類解》는 후에 金指南의 孫子 金弘喆에 의하여 《譯語類解補》[78] 1冊으로 補充되었으며 이는 英祖 51年(1775)에 刊行한 것이다.

한편 同王 22年(1696)부터 同王 46年(1720)까지 25年間에 걸쳐서 敎誨廳에서는 中國語敎科書인 《伍倫全備記》의 諺解事業이 이루어져[79] 다음 王인 景宗元年(1721)에 《伍倫全備註釋諺解》로 刊行되었다.

또 淸學關係의 活動으로는 崔厚澤, 李湜, 李宜白에 의하여 새 敎材로 《三譯總解》 10卷, 《淸語老乞大》 8卷을 編纂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4種 20卷으로 된 《淸語總解》인데, 이 出版은 同王 29年(1703)에 淸學官 朴昌裕등 6人의 힘으로 開刊되기 시작하여 肅宗 30年(1704) 여름에 完成되었다.[80]

한편 淸語辭典類로는 肅宗 17年(1691)에 淸學官 李海, 吳相采, 鄭萬濟 등에 의하여 《同文類集》이 刊行되었다.[81] 그러나 이는 現存하지 않는다.

그밖에 《小兒論》과 《八歲兒》를 申繼黯이 校正하였으며, 蒙語關係로는 朴東說, 朴東亮, 崔德萬에 의하여 《孔夫子》가 改正되었다.[82] 倭語關係로는 이미 앞서 言及한 것과 같이 《捷解新語》가 同王 2年(1676)에 丙辰倭諺大字로 刊行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譯官들의 活動은 後述할 〈文獻閣書目〉의 一部에도 나타나, 類目別로 比較한다면 그 著錄種數가 相對的으로 많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肅宗 後半期의 文化活動은 비록 中人과 南人의 登場에 따른 譯書類의 編纂과 같은 活動에도 不拘하고 黨爭에 便乘하여 沈滯의 一路에 빠지게 되었으며 結局 이는 文獻閣의 圖書館的인 機能發揮나 發展에까지 적지 않게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文獻閣은 肅宗朝에 있어서 一時的으로 蕩平策에 의하여 黨爭의 小康期로 접어들었던 때에 肅宗의 學問的 性格과 典籍保存의 意志로 세워졌던 것이나

78) 奎章閣 所藏本 중(一簑文庫 古 413.1-G419y) 등 2帙이 이에 해당한다.
79) 姜信沆,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서울 : 塔出版社, 1978), p. 102.
80) **上揭書**, p. 105.
81) 李覲洙, **朝鮮朝의 語文政策硏究**(서울 : 開文社, 1979), p. 237.
82) 李建衡, **朝鮮朝敎育政策硏究**(서울 : 螢雪出版社, 1981), pp. 137~138.

後代에 다시 再然된 黨爭 등에 의하여 그 文化的 機能을 제대로 遂行해보지 못하고 正祖朝의 奎章閣 設立 등에 따라 以後 一世紀의 停滯期를 맞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Ⅳ. 文獻閣書目의 成立과 藏書構成 分析

1. 文獻閣書目의 成立

現在까지 밝혀진 것으로 文獻閣의 藏書를 알 수 있는 唯一의 資料는 精神文化硏究院에 속한 藏書閣 所藏의 《閱古觀書目》[83]에 合綴된 〈文獻閣書目〉이다.

이 《閱古觀書目》은 卷末의 〈文獻閣書目〉 이외에도 〈皆有窩北房書目〉, 〈演慶堂書目〉 등이 合綴되어 있다.

먼저 이 書目의 成立時期를 究明하기 위하여 書目 全體를 살펴보면, 《閱古觀書目》의 後代內入이라 表記된 書籍 중에서 壬午(1822)~戊子(1828) 사이가 19種의 書籍에 나타나 있다.

그 最後의 '戊子內入'은 純祖 28年(1828)으로 兵家類 《戊事類占》[84]에 보인다.

한편 〈文獻閣書目〉에 나타난 것은 〈表 2〉와 같다.

〈表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文獻閣書目〉에서는 '癸未內入(1823)'에서 '丁亥內入(1827)'의 5年間의 記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같은 《閱古觀書目》에는 〈文獻閣書目〉에 나타난 內入의 干支 외에도 〈皆有窩北房書目〉의 內入記錄에서 '己丑內入[85](1829)'의 干支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文獻閣書目〉도 純祖 29年(1829)이나 그 以後에 作成되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事實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純祖 29年(1829)의 7年 後가 되는 憲宗

83) 奎章閣編, **閱古觀書目**([서울] : 內閣, 純祖 29年(1829)頃), 寫本. 1册(84張). 藏書閣所藏 (2-4654).
84) **上揭書**, *l.* 39A.
85) **上揭書**, 皆有窩北房書目, *l.* 2B.
「…杜律分韵 三件 二件各三卷 二件二卷…」

〈表 2〉 內入書籍一覽表

干支	年度	類目	書名	件·卷數
癸未內入	純祖 23(1823)	四書	中庸諺解	三件各一卷
甲申內入	〃 24(1824)	〃	〃	〃
	〃	孝經	孝經	二件各一卷
	〃	正史	史記評林	四十卷
	〃	掌故	大明集禮	六件各四十卷
乙酉內入	純祖 25(1825)	五經	書傳諺解	一件各四卷
丙戌內入	〃 26(1826)	四書	論語諺解	四卷
	〃	孝經	孝經大義	二件各一卷
丁亥內入	純祖 27(1827)	四書	大學諺解	十八件各一卷
	〃	掌故	大明律	六件各四卷

2年(1836)에 文獻閣으로 純宗·翼宗御製를 奉藏시켰으나 〈文獻閣書目〉에는 登載되어 있지 않다. 이를 《實錄》의 記事에서 보면,

> …辛丑 奎章閣啓言 純宗大王御製正書本十册三件 翼宗大王御製正書本六册五件 純宗大王翼宗大王御製合附列聖御製本十二册七十件 及別印 純宗御製八册 內下紙八件 唐紙九件 翼宗御製五册 內下紙五件 唐紙六件奉印 以入敎曰 純宗大王御製 翼宗大王御製 列聖御製合附本 奉謨堂 文獻閣 五處史庫 外奎章閣 內閣 玉堂 藏書閣 西王各一件 奉藏…[86]

이라 하였으나 〈文獻閣書目〉에서는,

> …列聖御製四十一件 四件各八卷 二十件各四卷 十七件各二卷
> …列聖御製六十二 原編五十八卷 別編四卷…[87]

으로 著錄하고 있어 앞서의 10册, 6册, 12册으로 된 列聖御製가 〈文獻閣書目〉에서는 登載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文獻閣書目〉의 編成時期는 純祖 27年(1827)에서 늦어도 憲宗 2年(1836) 以前이라고 여겨지지만 《閱古觀書目》이나 〈皆有窩北房書目〉에 보이는 內入記錄으로 보아 1829年을 前後한 時期일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86) **實錄**, 48, p. 444 下右. 憲宗 2年 丙申(1836) 5月 辛丑.
87) 奎章閣編, **前揭書**, **文獻閣書目**, *l.* 2A.

2. 文獻閣書目을 통한 藏書構成 分析

이미 앞에서 言及한 것과 같의 文獻閣은 廂庫의 藏書를 整備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므로 그 藏書가 一部 또는 主種을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現存하는 奎章閣의 藏書中에는 〔廂庫〕라는 所藏印이 捺印된 書籍은 約 40餘種으로 주로 肅宗代와 그 以前의 것이 많다.

그러나 設立 初期의 文獻閣에 所藏된 書籍의 量이나 主題範圍 등은 전하는 記錄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다만 〈文獻閣書目〉을 통하여 純祖까지의 그 規模를 짐작하게 한다.

이에 따르면 目錄에 收錄된 全體의 種數는 101種 366件 2,525册으로 모두 朝鮮本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朝鮮本 所藏의 事實은 《宮闕志》에 의하여,

> …肅廟御製文獻閣銘并小序曰 大內藏書 凡有三所 一曰養心閣 一切藏諸唐板 二曰欽文閣 三曰廂庫 皆藏鄕本…[88]

이라 한 것과 또 文獻閣이 廂庫의 藏書를 整備하기 위하여 建立된 것이니 朝鮮本으로 構成되었음은 당연할 것이다.

여기서 같은 時代에 朝鮮本을 收藏하였던 欽文閣을 살펴보면 《宮闕志》와 《六典條例》의 〈工典〉에서,

> …欽文閣 在熙政堂南 藏書籍之所 今無…[89]

라 하여 昌德宮에 있었던 所藏處로 《宮闕志》의 成立과 關聯지어 볼 때 文獻閣이 憲宗 以後까지 存立하였던 것에 비하여 欽文閣은 純祖末年頃에 이미 없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推定하건대 이는 昌德宮에는 奎章閣의 設立으로 말미암아 그 機能이 吸收되었을 것이지만 文獻閣은 西闕에 있었던 緣由로 계속 存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文獻閣의 藏書를 藏書構成의 特性面에서 考察하여 볼 때 朝鮮時代 宮中의 다른 書籍 所藏處의 書目 중에서 《隆文樓書目》[90]이 比較的 佛

88) **宮闕志**, p. 129.
89) 法制處編, **六典條例, 禮典·工典**(서울 : 同處, 1974), p. 432; **宮闕志**, p. 42.

敎文獻을 많이 著錄하고 있으며, 또 《承華樓書目》[91]이 書畵·圖帖類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그 特性이라 본다면 〈文獻閣書目〉에는 集部의 圖書가 대단히 적으며 특히 別集類는 《谿谷集》과 《尤菴集》의 2種 밖에 著錄하고 있지 않는 點을 그 特性으로 찾아 볼 수가 있다.

〈文獻閣書目〉에 著錄된 101種을 現存하는 〔廂庫〕라는 所藏印이 있는 奎章閣圖書와 比較하여 보면 約 25種 程度가 一致함을 보여 준다 .이는 〈文獻閣書目〉의 4분의 1에 該當하는 量으로 書目의 編纂時期를 앞에서와 같이 純祖 29年(1829)~憲宗 2年(1836)으로 본다면 廂庫의 書籍은 奎章閣이 設置된 以後에도 대부분 文獻閣에 所藏되어 變化가 없었으므로 別度의 機能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宮闕志》의 記錄대로라면 廂庫의 圖書는 다른 곳으로 많이 移動하였으므로[92] 그 一部가 奎章閣으로 包含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文獻閣의 藏書는 藏書開發의 側面에서 볼 때 御製 7種, 璿牒 2種, 御定 3種, 經部 30種, 史部 15種, 子部 131種, 集部 8種으로 集部의 書籍이 적음을 보인다.

이러한 比率은 같은 朝鮮本만을 所藏하였던 正祖代의 奎章閣 西庫가 가장 규모가 컸던 時期의 《西序書目 ; 草本》[93]에서의 比率인 御製御筆 68種, 璿譜璿牒 26種, 御定 115種, 經部 96種, 史部 176種, 子部 215種, 集部 392種, 其他 118種인 것과 比較하면 御定, 史部, 集部가 相對的으로 적음을 알 수가 있다.

藏書開發의 時期面에서 볼 때 거의 大部分이 光海君~肅宗에 이르는 百餘年間이며, 奎章閣이 設立되어 그 機能을 遂行하던 正祖代의 文獻은 거의 없는 것이 特色이다. 그러나 純祖代에 들어서면서 內入의 記錄에서 言及한 것

90) **隆文樓書目**, 發行事項不明, 1冊(24張). 寫本. 奎章閣藏(奎 11709)이 書目의 第七架에는 佛敎關係文獻으로 《靈樞經》을 비롯한 56種을 著錄하고 있다.
91) **承華樓書目**, 發行事項不明, 1冊, 寫本, 奎章閣藏(奎 9875).
92) **宮闕志**, p. 129.
「…廂庫書籍 最浩穰 而曾無一定處 多有移易之時 分散部秩…」
93) 奎章閣編, **西序書目 ; 草本**(內閣 : 正祖 19年(1795)頃), 1冊, 寫本. 狩野文庫藏(狩-第1門-170).

과 같이 다시 藏書가 收藏되고 《列聖御製》와 《弘齋全書》 등도 이 때에 收藏된 것이다.

그 중 《弘齋全書》의 所藏時期는 《實錄》에 의하면 純祖 14年 甲戌(1814) 4月의 일으로,

…癸丑 奎章閣印進 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一百册 景慕宮睿製三册各三十件 敎曰 先朝御製 奉謨堂 宙合樓 望廟樓 華寧殿 文獻閣 五處史庫 外奎章閣 內閣 玉堂 春坊 各一件奉藏 又敎曰 景慕宮睿製 奉謨堂 宙合樓 望廟樓 華寧殿 文獻閣…各一件奉藏…[94]

이라는 記錄이 보인다.

이는 〈文獻閣書目〉에서,

…正宗大王御製集 一百卷…[95]

의 記錄과 一致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記錄으로 미루어 文獻閣은 肅宗 26年(1700)에 設立되어 1次 整備되고 그로부터 百年後인 純祖(1800~1834)代에 이르러 두번째 整備期 내지는 機能의 復活이 이루어졌으나 그 以後의 事實은 알 수가 없다.

다만 〈文獻閣書目〉이 《閱古觀書目》 내에서 〈皆有窩北房書目〉이나 〈演慶堂書目〉 등 昌德宮의 所藏處 目錄과 合綴되어 있다는 點과 現存 奎章閣藏書의 所藏印으로 미루어 舊韓末에 奎章閣으로 統合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V. 文獻閣書目의 分類體系

1. 概 要

〈文獻閣書目〉의 分類體系는 同書目이 《閱古觀書目》의 一部가 되어있는 點으로 보나, 또 같은 時期에 編纂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西庫書目》[96]의 朝鮮本 分類體系로 미루어 그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94) **實錄**, 48, p. 60 上右. 純祖 14年 甲戌(1814) 4月 癸丑
95) **文獻閣書目**, *l*. 2A.
96) 奎章閣編, **西庫書目**〔〔서울〕: 內閣, 高宗 5~6年頃(1868~1869)〕, 1册, 寫本. 藏書閣藏(2-4963).

그것은 이 書目의 類門設定에 있어서 御製附賡韻, 璿牒, 御定類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뒤에 經部, 史部, 子部, 集部의 順序를 따르고 있어 《西庫書目》의 體制와 一致하고 있다.

各部 內에서의 細區分은 經部가 4區分, 史部가 4區分, 子部가 10區分, 集部가 2區分으로 部以下의 區分에 대한 表示는 各 區分의 書名을 配列하고 그 끝에 '已上○○'이라 表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已上○○'이란 方式의 區分方式은 이미 正祖 16年(1792)에 編成되었을 《西序書目 ; 籤錄》[97]에서 屬位區分을 위하여 使用하였던 바가 있다.

아뭏든 〈文獻閣書目〉의 四部分類 內에서 그 主題區分의 種數는 다음과 같다.

1) 御製 : 7種
2) 璿牒 : 2種
3) 御定 : 3種
4) 經部 : ① 五經(14種), ② 四書(11種), ③ 孝經(2種), ④ 小學(3種)
5) 史部 : ① 正史(2種), ② 雜史(4種), ③ 傳記(4種), ④ 掌故(5種)
6) 子部 : ① 儒家(10種), ② 天文(2種), ③ 曆象(2種), ④ 術數(4種)
⑤ 醫家(10種), ⑥ 兵家(3種), ⑦ 道家(2種), ⑧ 譯語(3種),
⑨ 雜家(1種), ⑩ 書帖(1種)
7) 集部 : ① 總集(3種), ② 別集(2種)

이러한 區分에서도 느낄 수가 있듯이 이 書目은 韓國本 藏書의 分類를 위하여 만들어진 典型的인 體系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他 書目과의 分類體系 比較

〈文獻閣書目〉을 다른 書目과 比較함에 있어서 그 條件이 되는 것은 우선 朝鮮本을 위한 分類體系라는 點이다.

따라서 奎章閣 西庫의 여러 書目이나 《寶文閣書目》[98], 《鏤板考》[99] 등과

97) 奎章閣編, **西序書目籤錄**([서울] : 內閣, 正祖 16年(1792)頃), 1冊, 寫本, 日本駒澤大學圖書館藏(濯足文庫 11).
98) **寶文閣册目錄**, (發行處不明, 正祖年間), 奎章閣藏(奎 11617).
99) **徐有榘, 鏤板考**, 洪命憙校訂本, (서울 : 寶連閣, 1968), 影印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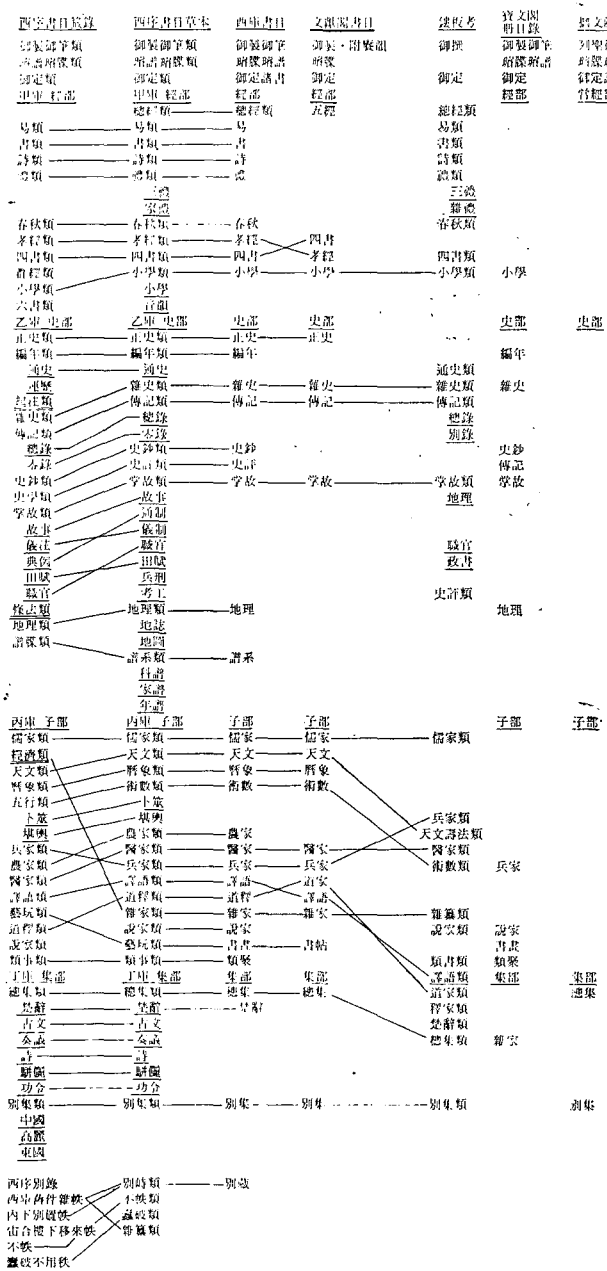


圖 3. 文獻通書目과 다른 書目과의 分類體系 比較圖

比較하면 여러 面에서 類似點을 찾을 수가 있다. (圖 3 參照)

〈文獻閣書目〉은 四部의 앞에 御製附歷韻, 璿牒, 御定의 類門을 두어 위에서 든 大部分의 朝鮮本 書目들과 類似하게 展開하고 있다.

이중 璿牒類에 《國朝寶鑑》을 包含시키고 있으나 다른 書目에서는 이를 御定類로 包含하고 있는 點이 다르다.

물론 《國朝寶鑑》은 오늘날의 觀點에서 본다면 史部의 編年類에 속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觀點으로는 御定類로 分類되어야 할 것으로 이 書目에서 璿牒類로 넣은 것은 書目 作成者의 錯覺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事實은 同時代에 編成되었을 것이며 또한 같은 朝鮮本書目으로 體制가 類似한 《西庫書目》에서도 《國朝寶鑑》을 御定類에 包含시키고 있다.

經部에 있어서는 '五經'이라는 類를 두어 易·書·詩·禮·春秋를 包含시키고 있다. 그러나 孝經은 따로이 分離시켜 四書類의 뒤에 별도로 두고 있어 이것이 다른 書目과의 큰 差異點으로 보인다.

易·書·詩·禮·春秋는 비록 그 順序를 지키고는 있으나 한꺼번에 모은 것은 이 書目의 規模로 보아 取及의 容易함을 위하여 統合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孝經類를 分離한 것은 그 理由를 잘 알 수가 없다. 더우기 五經類에 繼續되는 類가 아니라 中間에 四書類를 끼고 있는 點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要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으로 〈文獻閣書目〉이 合綴되어 있는 《閱古觀書目》의 分類體系가 그와 같이 展開되어 있는 事實이다.

參考로 《閱古觀書目》의 經部體系를 보이면, 總經·易·書·詩·禮·春秋·樂·四書·孝經·小學[100]으로 一般的인 다른 書目과는 다르게 順序가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各類內에서의 著錄된 個個書의 順序는 《西序書目 ; 草本》이나 《鏤板考》와 같아서, 例를 들면 小學類內에서의 小學·韻音은 順으로 되거나 禮類에 三禮·家禮·雜禮로 이어지는 順序는 比較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史部에 있어서는 正史·雜史·傳記·掌故로 나누고 있으나 雜史類의 《明紀編年》이나 掌故類의 《唐鑑》은 分類上의 統合에 따라 不可避하였던 것으로

100) 奎章閣編, **閱古觀書目**, *l*. 1A.

여겨진다. 즉 雜類의 가장 앞에 著錄된 《明紀編年》은 事實上 編年類에 속하는 것이지만 編年類가 1種 뿐이라 分類上 無理임에도 不拘하고 順序만을 지키는 範圍內에서 한 곳으로 모은 것 같다. 마찬가지로 《唐鑑》 역시 그 順序나 分類面에서 볼 때 史評類에 속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理由로 掌故類에 包含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雜家類의 경우로 보아 이는 類門設定上의 불균형으로 지적된다.

子部에 있어서는 儒家·天文·曆象·術數·醫家·兵家의 順序로 이는 다른 書目과 類似하며 다만 農家類는 解當하는 所藏本이 없음으로 인하여 設定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道家·譯語·雜家·書帖으로 이어지는 順序에 있어서, 다른 書目에서 譯語·道釋·雜家의 順序와는 差異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雜家類(《西序書目 ; 籤錄》에서는 經濟類로 表示)에는 《警民篇》의 1種만을 著錄하고 있어서, 앞서의 史部에서 본 바와 같은 編年類나 史評類의 省略現象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 물론 雜家類 前後의 類門이 譯語와 書帖으로 內容面에서 完全히 달라서 統合하기 어려워 分離시켰을 可能性이 있을 것이나, 이는 結局 類門設定上 衡平의 原則이 무너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 이 書目의 不足한 點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現象은 書帖類에서도 보인다.

集部에 있어서는 크게 總集과 別集으로 갈랐을 뿐으로 다른 書目에서 보이는 屬位區分은 考慮하지 않았다.

以上에서 볼 때 〈文獻閣書目〉의 分類體系는 같은 朝鮮本書目인 《西庫書目》 등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며 거기다가 必要性과 藏書量의 多寡에 따라 類門을 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밖에 部分的으로 《閱古觀書目》의 體系를 따랐으나 御筆, 璿牒, 御定類의 設定이나 譯語類의 設定은 朝鮮本 分類體系의 特徵을 잘 反映하고 있다.

Ⅳ. 文獻閣書目의 書誌記述

〈文獻閣書目〉을 書誌記述의 側面에서 볼 때 朝鮮時代 대부분의 書目처럼

解題가 없이 書名이 標目으로 되어 있다. 또 主題順에 의하여 配列된 書誌分類와 書架分類를 兼用한 書目이다.

이 書目은 같은 朝鮮本의 目錄인 奎章閣 西庫의 여러 書目들처럼 多樣한 記述의 方式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關聯된 分析의 하나로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의 書誌記述 要素[101]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書名事項

著錄된 書名의 主情報源은 表紙의 書名으로 여겨지고 경우에 따라 縮略型으로 記述하고 있다.

(例) 春秋胡傳〔春秋胡氏傳〕 二件…*l.* 5B.
崇德八年延勅儀軌三卷…*l.* 7B.
〔迎接都監宴享色儀軌〕 1卷
〔 〃 應辨色 〃 〕 〃 } 合하여 計算
〔 〃 雜物色 〃 〕 〃
地理新法一卷…*l.* 8B.
〔類集陰陽諸家地理必用選擇大成〕

나. 形態 및 所藏事項

所藏된 件數와 册數는 '○件各○卷'으로 記述하고 一件內에서 卷數가 달리 編成된 것은 따로이 區分하고 있다.

所藏本 중에서 散逸된 것은 그 缺本에 한하여 '第○佚'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例) 文選二件各六十卷一件第二十佚…*l.* 10A.

다. 發行事項

여기서는 주로 刊行된 場所 또는 編한 機關과 刊行한 發行處를 同時에 表示하는 것으로 芸館 즉 校書館, 譯院 즉 司譯院, 雲觀 즉 書雲觀에서 發行하거나 刊行된 것을 包含하고 있다.

101) 南權熙, "奎章閣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分析：現存書目을 中心으로," **未刊本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83. pp. 155~156에 設定한 領域과 用語에 의한 展開로 制限하였음.

ㄱ) 芸館

書目內에서는 '芸館活印'이라 記錄하여 《書經大文》, 《庸學大文》, 《孟子大文》의 3種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活印'이라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當時의 校書館에 所藏된 어느 活字로 刊行되었을 것인 바, 이를 具體的으로 究明하자면 現存하는 奎章閣의 印本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孟子大文》은 戊申字本(奎 1886~1888), 元宗字本(奎중 1764), 木活字本(奎중 1831)이 現存하고 있으며, 《書經大文》은 戊申字本(奎중 182)의 2册本이 있으나 또 《書傳大文》이라는 訓鍊都監小字로 찍은 1册이 있다.

《書傳大文》(奎중 175, 177)은 1册으로 書目에 著錄된 '六件各一卷'[102]이라는 記錄과 一致하며 또 藏書印에 있어서도 〔廂庫〕라 捺印되어 있는 바 文獻閣의 舊藏書였을 可能性을 짙게 한다.

한편, 《庸學大文》(奎중 672~674)은 1册으로 戊申字本이다.

以上을 綜合하면 '芸館活印'은 戊申字로 肅宗時에 校書館에서 刊行하였음을 나타내나 現存本으로 볼 때 《書經大文》은 1册으로 된 것은 없으며 2册本은 역시 戊申字本이다. 다른 한편으로 《書傳大文》 1册이 있으나 이는 訓鍊都監字本으로 과연 여기서 指稱하는 '芸館活印'의 範疇에 들어갈 것인가는 疑問이다.

ㄴ) 司譯院

書目上에서는 '譯院刊印'으로 記錄하고 《春秋正音》, 《論語正音》, 《中庸正音》의 3種을 들고 있다.

現存하는 奎章閣圖書에 볼 때 이 正音類는 英祖 11年(1735)[103]에 司譯院에서 木活字로 찍은 것들로 《春秋正音》(奎 1642~1644), 《論語正音》(奎 1606, 3649), 《中庸正音》(奎 1765, 3402)이 이와 같은 印本들이다.

이 木活字에 관한 硏究는 尹炳泰[104]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經書

102) **文獻閣書目**, *l.* 5A.

103) 《春秋正音》, 《論語正音》, 《中庸正音》의 內賜記에 의함; 尹炳泰.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100.

104) 尹炳泰, "經書正音字攷," **도협월보**, 第15卷, 第11號(1974, 11), pp. 20~24.

正音字'로 부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論語, 孟子, 中庸, 大學, 詩經, 春秋 등의 7種 經書를 英祖 10年(1734)에 司譯院의 院官인 李聖彬 등이 돈을 내어 印刷한 것이다.

ㄷ) 書雲觀

주로 天文關係의 諸書를 刊行한 곳으로 書目上에서는 '雲觀編印'으로 나타내고 《七政算》과 《七政百中曆》의 2種을 著錄하고 있다.

《七政算》은 現存의 《七政算內篇》(奎 2228)으로 李純之와 金淡의 受命編으로 校書館木活字로 찍은 것이며 역시 〔廂庫〕라는 所藏印이 있다. 또 《七政百中曆》은 現存本으로 보면 觀象監木活字로 찍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雲觀編印'은 編纂의 場所와 刊行事實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芸館活印'이나 '譯院刊印'은 發行處를 記述함과 同時에 刊行方式도 나타낸 것이다.

라. 註記事項

著錄된 種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으나 간혹 所藏事項에 대하여 說明을 附加하고 있다.

(例) 列聖御製六十二卷 原編五十八卷 別編四卷…*l.* 2A.

마. 著者事項

이 書目에 나타난 著作機能表示語는 ① 御製, ② 御定, ③ 撰, ④ 等撰, ⑤ 合註, ⑥ 註, ⑦ 評, ⑧ 編, ⑨ 代撰, ⑩ 問答, ⑪ 解, ⑫ 著, ⑬ 選의 13가지를 들 수가 있겠다. (〈表 3〉 參照)

著者에 대하여는 그 時代를 王朝別로 表示하는 바 元, 明, 漢, 宋, 周, 晉, 唐, 淸, 晋, 齊, 魏, 秦, 梁로 中國을 가르고 우리나라는 '本朝' 또는 '宣廟朝諸臣撰'처럼 王廟를 使用하였다.

이러한 〈文獻閣書目〉의 書誌記述方法은 같은 韓國本 書庫의 目錄들인 西事의 여러 書目에서 보이는 特色들이 多少 보이고 있어 그 命脈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文獻閣의 藏書가 많지 않았던 關係로 多樣한 記述要素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他書目들과 比較할 때 그 種數에 비하여 比較的 높은 記述段階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表 3〉 〈文獻閣書目〉의 著作機能表示表

書名	著者名	機能表示	出處
龍飛御天歌十卷		御定	l. 4A
光國志慶錄六件各一卷		御製	l. 2A
論語或問五件各六卷	朱子	撰	l. 5B
周禮三件各七卷	鄭玄	註	l. 5A
春秋集傳大全十一件…	永樂中勅		
	胡廣	等撰	l. 5B
史記評林四十卷	司馬遷撰		
	凌稚隆	評	l. 7A
斥邪綸音一卷	趙寅永	代撰	l. 7B
二程全書十七卷	朱子	編	l. 8A
金囊經二件各一卷	郭璞撰		
	一行	等註	l. 9B
素問十五卷	黃帝岐伯	問答	l. 9B
司馬法直解	司馬穰苴撰		
	劉寅	解	l. 10A
文撰二件各六十卷	蕭統	選	l. 10A
	六臣	合註	l. 10A
谿谷集十八卷	張維	著	l. 10A
臟藥症治方卷		撰人未詳	l. 9A

Ⅶ. 結 言

이상과 같은 硏究에서 文獻閣의 設立과 그 書目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文獻閣의 設立과 發展에 關聯된 肅宗朝의 出版文化 등 몇가지 側面으로 살펴보았다.

이 硏究에 따라 나타난 結果를 몇가지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獻閣은 肅宗이 40歲가 되던 在位 26年(1700), 즉 黨爭이 주춤하고 肅宗의 學問이 成熟期였던 때 王의 뜻에 따라 設立된 것으로 그 目的은 廂庫의 朝鮮本들이 混亂되어 있었으므로 이의 整備를 위하여 慶德宮(英祖時 慶熙宮으로 改稱)의 景賢堂의 東쪽에 세워졌다.

둘째, 文獻閣의 發展面에서 볼 때 設立後 肅宗末까지는 黨爭 등으로 인하여 藏書開發이 원할하지 못하였으며 그 뒤 一世紀동안은 奎章閣의 設立 등

으로 더욱 萎縮되었으나 純祖朝에 이르러 다시 그 機能이 復活하였음을 보여 준다.

셋째, 文獻閣의 藏書構成은 現存하는 〈文獻閣書目〉으로 槪略的으로 把握되어지는 바로 101種 2,525冊이며 그 特色으로는 集部類가 2種으로 現存하는 다른 目錄과 比較할 때 매우 적은 것이다. 그 理由로는 文獻閣이 他所藏處와는 달리 體系的으로 藏書開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애초의 目的이 廂庫書籍의 整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넷째, 〈文獻閣書目〉의 成立은 書目上에 나타난 것으로는 純祖 27年(1827)이나 《閱古觀書目》과 合綴인 點으로 미루어 볼 때 純祖 29年(1829)頃에 編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文獻閣書目〉의 分類體系는 御製附賡韻, 璿牒, 御定과 四部分類體系로 構成되어 있고 全體的 體系는 역시 朝鮮本書目인 《西庫書目》의 影響을 받은 것 같다.

다만 差異點으로 總經類 대신 五經類를 둔 점, 四書類와 孝經類의 順序가 서로 바뀐 것, 譯語類와 道釋類가 道家와 譯語類로 바뀌고 冊數가 적었던 關係로 類目은 줄였음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書目의 分類上 短點을 찾는다면 類目設定이 均衡있게 設定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여섯째, 書誌記述面에서도 《西庫書目》 등과 類似하며 특히 發行事項을 多樣하게 表現하고 있다.

대체로 위의 여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이 硏究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 補完的 硏究가 必要한 部分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舊韓末에 朝鮮總督府으로 奎章閣 등이 統合되는 過程中에 文獻閣은 어떻게 變遷하였는가 또는 그 以前에 없어진 것인가 그렇다면 그 理由는 무엇일까 등등이다.

둘째, 奎章閣이 設立되기 以前의 文藝復興의 初期에 文獻閣이 發展하지 못한 까닭을 찾는 일.

셋째, 其他 文獻閣에 關聯된 史料를 찾아내어 體系化시키는 일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以上과 같은 硏究를 바탕으로 文獻閣 즉 肅宗朝의 韓國本 書庫에 대한 硏究가 이루어짐으로써 集賢殿, 弘文館, 奎章閣으로 이어지는 朝鮮時代 圖書館史와 書誌史의 一隅를 기울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參 考 文 獻>

Ⅰ. 原 典

經延廳 編. **列聖進講冊目錄**. 〔서울〕: 同廳, 英祖 29(1763) 1冊, 寫本.
宮闕志.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檀紀 4290(1957), 影印本, 1冊.
奎章閣 編. **奎章閣志(再草)**. 〔서울〕: 內閣, 正祖 3年(1779), 1冊, 寫本.
奎章閣 編. **奎章閣志(初草)**. 〔서울〕: 內閣, 正祖 5~6(1781~1782), 1冊. 寫本.
奎章閣 編. **西庫書目**. 〔서울〕: 內閣, 發行年不明, 1冊, 寫本.
奎章閣 編. **閱古觀書目**. 〔서울〕: 內閣, 純祖 29(1829)頃, 1冊, 寫本.
備邊司謄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檀紀 4292(1959). 影印本, 28冊.
西闕營建都監 編. **西闕營建都監儀軌**. 〔서울〕: 同都監, 純祖 32(1832), 1冊, 寫本.
肅廟寶鑑. 英祖 命編, 發行事項不明, 英祖 6(1730), 活字本(戊申字), 8冊.
承政院日記.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3. 影印本, 126冊.
新增西國輿地勝覽. 李荇等受命編. 서울: 景文社, 1978. 影印本, 1冊.
柳本藝, **漢京識略**. 서울: 서울特利市史編纂委員會, 檀紀 4289(1956), 影印本, 11冊.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58. 影印本, 48冊, 總索引, 1冊.
增補文獻備考. 弘文館纂輯 校正. 서울: 東國文化社, 1970. 影印本, 3冊.

Ⅱ. 硏究論著

姜信沆.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서울: 塔出版社, 1978.
京畿道誌編纂委員會 編. **京畿道誌**. 서울: 同會, 檀紀 4288(1955), 2冊.
國際文化財團 編. **韓國文化의 諸問題**, 서울: 時事英語社, 198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未刊本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82.
白麟. **韓國圖書館史硏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서울大學校 圖書館 編. **奎章閣圖書 韓國本 綜合目錄**. 서울: 同館, 1981, 2冊.
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會 編. **서울六百年史**. 서울: 서울特別市, 1978, 2冊.
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會 編. **서울特別市史**. 서울: 서울特別市, 1963, 4冊.
尹炳泰. "朝鮮時代 活字使用考." **奎章閣**. 2(1978), pp. 57~77.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大型活字**.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尹炳泰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2.

李宣根. **大韓國史**, 서울 : 新太陽社, 1973, 12冊.

李定求. **四千年文獻通考**. 京城 : 東明社, 大正 15(1926).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硏究 : 朝鮮朝의 四部分類法考." **省谷論叢**. 7輯(1976), pp. 580~598.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 四部分類法의 適用史를 중심하여." **민족문화**. 창간호(1975. 12), pp. 21~41.

李哲源. **王宮史**. 서울 : 舊王室, 檀紀 4287(1954).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變動硏究**. 서울 : 一潮閣, 1983.

A Study of the Munheongak and Munheongaksomog

Nam, Kwon-Heui*

Abstract

This is an analytical study on Munheongak (文獻閣) and it's catalogue.

The major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get a recognition of Munheongak under the culture of Sukjong (肅宗) period in Korean library history.

Most of early studies made on such a category have been concentrated on Jiphyunjeon (集賢殿), Hongmungwan (弘文館), Kyujanggak (奎章閣) and their backgrounds.

In this study, the author has investgated Kungwolji (宮闕志), Munheongakseomg (文獻閣書目) and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is subject.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unheongak was established by king Sukjong in the 26th year of his reign. According to some records of Kungkwolji, the reason of establishment of the library was to arrange the collection in the Sango (廂庫) consisted of various kinds of materials. In case of books, most of them turned out to be Korean books.

2. Munheongak was sited to the estern side of Kyunghyundang (景賢堂), which was located on the Kyungdeokgung (慶德宮). After Youngjo (英祖) the place was called Kyungheuigung (慶熙宮) so as

* Instruct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avoid the name of the precedent king. But these days, both the buildings are not to be found.

3. After its establishment, the library could not play the role as a library because of the then political situation and sectionalism. During the period of the revival of the learning from Youngjo till Jeongjo (正祖) the function of the library was in a stagnant state. Kyujanggak played the part in its place.

4. Referring to the collection management, the Munheongakseomog is equipped with 101 titles, 2,525 volumes, which are arranged by means of the traditional Chinese classification system.

5. The classification scheme is based on the traditional Chinese classification system which might divide all subjects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Confucian classics division, Historical documents division, Master's division, and Collection of literature division.

Some illustrations reveal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directly influenced by Seogoseomg (西庫書目) : the influence reflected in the classes for the translated literature and writings, poems, genealogy about kings, etc.

But some subdivisions such as a class of Annals, Historical Epcerpts were omitted in the classification scheme, which did not strike the balance in the system in terms of the present theory of classification.

Most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s were also influenced by Seogoseomog but some elements were partly omitted.

6. The special feature of the collection building is the absence of books in Collection of literature division except only three kinds of books in examining the Munheongakseomog.

Since this is rather a comprehensive study for such aspects as historical backround, catalogue, and cultural environment of Munheongak and its related record, it is advised that further and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made.